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새벽 정리 말씀(편집본)

다시금 오늘의 새벽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있었어요?

새벽! 새벽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시간으로 요즘에 보내는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귀하게 새벽을 보내니까 귀하고 중요한 하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져 오는 것입니다.

항상 조건 반사입니다. 조건을 세워야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항상 온다는 것입니다. 거저가 없습니다. 온 세계의 각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새벽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살았으니까 이제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망권의 삶은 무심하고 한심하고 때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니 우리도 새벽에 역사하며 일어나 빛을 받자.”

여러분이 슬럼프에 빠져 있다, 그리고 얹어져 있다 할 때는 후닥닥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도(道)라는 것은 하늘로부터도 받지만, 본인도 깨닫는 것입니다. 대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자기로 인해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자기를 늘 살피라.”

철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너희 자신을 알라. 너희 자신을 알라.”

그것이 철학의 핵심입니다. 한마디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라.” 입니다.

철학은 자기를 내다보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자기를 내다봤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를 쳐다보라! 모두 전부 다 자기를 쳐다보면서, 자기를 생각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것이 그릇이 됐으니까 평생 손떨 것이 없습니다. 이걸 이제 흠으로 안 변합니다. 1200도에 구웠으니까. 이렇게 되도록 하라.

그리고 “여자들을 목회자로 내보내는 것도 모순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누가 합니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는 알지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지요. 확실히 알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하시는 일인지 아니까. 내적인 모든 세계를 잡아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계속 잡아주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큰일들 하고 다른 일도 하고, 여자들도 큰일도 하고 목회도 하고 다 합니다. 큰일 하잖아요. 그러나 나간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남자들을 중시해서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은 신부시대이기 때문에 신부들을 굉장히 크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말씀으로 볼 때 첫 번째, 이것은 꼭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도, 어려운 환난이 있어도 긴 것은 기구나.(맞는 것은 맞구나.)

기라고 해 놓고 환난이 오면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고쳐요.

“아, 그것이 아니구나.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 추운 계절이 온다고 그건 계절이 아닙니까. 추운 계절도 계절, 여름도 뜨거워도 계절, 가을도 계절 다 계절이지요.

“겨울은 계절도 아니다. 아 이게 무슨 계절이냐. 나는 계절 속에 안 넣는다.” 해도 그건 자기만 그런 것입

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근본으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꾀박과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났지, 그 역사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가운데 핵심은, “이런 어려운 것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너희는 깨닫고 알도록 하라.”

신약 시대 때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상상도 못하게. 우리는 그 다음역사가 아닙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려움을 받고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

우리가 사탄의 세계, 사망의 세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몇 마디로 얘기해 주겠습니다. 잘 모르면 안 됩니다. “왜 사탄과 귀신들을 안 가두냐? 가두어 놓지.” 하는데 현재 가두어 놓았습니다.

사탄과 마귀 귀신들을 가둬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데로 왜 오지요?”

그것은 왜 그런가하니, 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둠은 어둠에다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안의 불을 끄면 어둠이 짙어옵니다. 그 원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천상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항상 빛 가운데! 그러면 어둠은 평생 안 받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방안에 불을 끄지 않는 이상 항상 환하잖아요. 낮에는 햇빛으로 환하고, 밤에는 불빛으로 환합니다. 끄면 어둠이 들어오듯이 여러분이 사탄 짓이나 어둠의 짓을 하면 사탄이 거기가 자기 주관권이라 어둠이 먹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반항하거나 하나님께 오해하거나,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오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나 하면 ‘모른다.’ 그 말입니다.

자꾸 얘기하면 풀어집니다. 오해는 어떻게 풀어지느냐 하면, 대화해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계도 우리가 모르고 오해했었습니다. 사탄이 풀어놓아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막 집적거리는 줄로 아는데,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집적거립니다. 옳과 같이 잘하는데도 집적거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그렇게 할 때에 사탄이 자기 주관권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파장이 통합니다. 전파를 잡을 때 방송 채널을 미국 방송으로 돌리면 하루 종일 미국 방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항상 의롭게 결국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의롭게 삶으로 인해서 사탄 주관권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 감으로 그 주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의심하면, 의심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의심이 누구든지 자기 자체에서 생겨서 의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의의 세계도 그러하다! 자기가 의를 행하면 의의 세계, 은혜의 세계의 주관에 딱 들어온 것입니다. 의를 행하면.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을 때 회개 안 하면 계속 사탄이 먹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죄를 짓고 있으면 이미 그 자체가, 흑암의 주관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권을 심판한다고 딱 모터를 누르면 그 사람까지 다 죽는 것입니다.

의인 중에서 마음 변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들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주관이 있으면, 사탄들이 늘 자기 어둠의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 집이 저렇게 불안하고, 저렇게 막 싸우고..’ 하니까 사탄이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지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악심이 생기면서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사울인데, 다윗을 미워하니까 그냥 들어왔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빨리빨리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운명이 좌우된다!” 그랬습니다. “항상 그것이 그렇게 크다.”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들이 말씀 들을 때.”
“내 말인 줄을 알고 듣는 것이다. 내 말인 것을! 나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을 알고 듣는 자들이 가장 말씀을 깊이 듣고, 가장 깊고 좋은 밭에다 씨를 뿌리는 입장과 같다.”

내가 산에 가서 기도했을 때나, 월남에 가서 총을 겨누었을 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듣고서 실천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선생 옆에 있기를 원합니까? 나와 손을 한 번도 안 잡아봤어도 신앙이 저 앞에 간 사람이 많습니 다. 왜 그런지 압니까? 말씀 듣는 데서 운명이 좌우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제일 큰 것입니다. 말씀 듣는 자세들이! 신약권에서는 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듣도록 하라. 그래야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해 주리라.”

선생님 앞에 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 하더라고요. 딱 오면 두려워함으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고마워 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섭리사를 나간 사람들은, 나를 확실히 믿은 사람들은 잘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습 니다.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은 사람은 안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함정 파는 꾀박이고 어려움입니다.

지옥을 면하려면 열심히 하라. 천국생활을 하려면 열심히 하라. 새벽도 깨우고 열심히 하라.”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꾀박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래? 같은 대열의 역사들인데. 너희 바로 앞에 있는 선조들이, 신약 역사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거야. 너희는 조금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고, 뭐한다고 해도 자기 할 일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것을 갖고서 그러느냐? 이 런 일, 저런 일 모두 그렇다.”고 했습니다. 용서와 사유를 주시고, 이제 꾀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 천국이 라고 했습니다. 역사가 시작되었으니까!

사람들은 천국이 오면 어려움은 전혀 일절 없는 세계로 생각합니다. 아니, 겨울이 오면 방안에 있어도 추 운데. ‘겨울에는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지? 방안에 있어도 추운데.’ “아니 옷을 입어도 춥잖아. 방안에 있 어도 춥고 옷을 입어도 춥잖아. 히터를 틀어도 춥잖아. 겨울이 오니까 그 영향을 받고서.”

그 환난기의 영향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견디면서 열심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래도 하나님의 천국은 가고 있다. 추위도 계절은 간다. 지금 봄이 왔는데도 춥지 않느냐? 봄이 왔는데도 추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옛 조상들이 환난을 당한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받는 것은 아주 적은 것인데,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우러러보며 좋아할 줄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너무 너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일어난다고 “늘 네 자신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함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해 주시고, 우리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잘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가 이들에게 함께 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심을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